제임스 볼드윈의 『또 다른 나라』에 나타난 자기 재현과 초월적 사랑의 문학적 비전

엄 기 동

차 례

Ⅰ. 들어가는 말
Ⅱ. 『또 다른 나라』와 흑인동성애
Ⅲ. 자아 선언
Ⅳ. 인종과 성을 초월한 사랑의 문학적 비전
Ⅴ. 나가는 말

Ⅰ. 들어가는 말

제임스 볼드윈(James Baldwin)의 소설 전체를 아우르는 중요한 특징들 중의 하나는 자신의 과거와의 밀접한 연관성인데, 이는 작가 자신의 "경험"을 중시하는 볼드윈의 문학관을 반영하는 것이다.[1] 여기서 "경험"이란 단순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일련의 사건들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축적된 하나의 통합적인 경험, 또한 그러한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자기 자신과 외부 세계에 대한 보다 넓고 성숙한 관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볼드윈의 소설들은 그것들이 쓰여 졌을 당시의 개인적 현실과 사회적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면서 끊임없이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볼드윈이 자신의 삶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던 9년간의 유럽망명생활(1948-1957)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이후 처음으로 쓴 장편소설 『또 다른 나라』(*Another Country*, 1962)는 그가 파리(Paris)를 비롯한 유럽의 여

1) James Baldwin, *Notes of a Native Son* (Boston: Beacon, 1984) 7.

러 나라들을 여행하며 열정적으로 탐색했던 정체성의 문제들, 사랑을 통한 구원의 가능성, 그리고 미국작가로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잘 표현해 내고 있으며, 그 다루고 있는 주제의 폭과 관점의 깊이에서도 앞선 두 작품을 압도하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한 인간으로서, 또한 작가로서 볼드윈의 성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되어질 만하다. 본 논문은 『또 다른 나라』에서 처음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들인 흑인동성애의 문제와 흑인과 백인 간 인종관계의 재현에 주목하여, 그러한 주제들이 어떻게 볼드윈의 성장과 관련이 있는지를 "자기 재현"(self-representation)과 "인종과 성을 초월한 사랑의 문학적 비전 제시"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또 다른 나라』와 흑인동성애

『또 다른 나라』를 볼드윈의 이전 두 작품들, 『산 위에 올라 말하리라』(*Go Tell It on the Mountain*, 1953)와 『조반니의 방』(*Giovanni's Room*, 1956)과 구별되게 해주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보다도 소설의 중심인물인 흑인남성 루퍼스 스캇(Rufus Scott)이 동성애자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이다.[2] 흑인동성애자가 소설의 중심인물로 등장하는 경우는 볼드윈 작품을 통틀어 처음 있는 일이며, 이는 또한 당시 미국문학의 전통에서도 전례가 없던 일이다. 더구나 흑인동성애자가 성적·인종적 편견을 가진 백인남성작가가 아닌, 당시 많은 흑인들이 인종차별과 억압에 대한 자신들의 대변자(spokesman)로 여겼던 볼드윈의 작품에서, 그것도 인생의 끝없는 추락 속에 결국 비극적인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인물로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은 설령 작가의 의도가 다른 데에 있다 할지라도 전통적으로 보수적이고 종교적인 미국사회, 특히 동성애를 성적으로 문란하고 비도덕적인 백인사회의 산물로 간주했던 흑인공동체에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이다. 흑인사회 내

2) 백인 여성 리오나(Leona)와 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루퍼스는 양성애자(bi-sexual)로 불릴 수도 있겠으나, 리오나와의 관계는 인종적 요소가 노골적으로 개입된 경우이며, 소설의 초점은 분명히 루퍼스의 동성애, 특히 백인 남성들과의 관계에 맞춰져 있다.

여러 진영으로부터 혹독한 비판이 이어졌고, 그 중에서도 당시 흑인민족주의 저항운동을 이끌었던 엘드리쥐 클리버(Eldridge Cleaver)의 볼드윈 비판은 악명 높다.[3] 『또 다른 나라』의 출판은 그동안 볼드윈이 자신의 에세이들과 첫 번째 자전 소설(semi-autobiographical novel)인 『산 위에 올라 말하리라』를 통해 쌓아올렸던 명성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듯 보였으며, 실제로 시카고(Chicago)나 클리블랜드(Cleveland)와 같은 흑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볼드윈의 책을 비록 비공식적이긴 할지라도 금서(禁書)로 지정하여 판매를 금지하기도 했다(Leeming 200). 당시 열정적인 시민권리운동가로 활동했던 볼드윈이 1963년 워싱턴 대행진(the March on Washington) 행사에 초청받지 못한 이유가 『또 다른 나라』의 미국사회 내 부정적 반응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비평가 린 오릴라 스캇(Lynn Orilla Scott)의 주장은 이러한 면에서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53).[4]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또 다른 나라』에 대한 볼드윈 자신의 평가는 앞서 언급한 세간의 반응과는 너무 다르다는 것인데, 소설이 출판

---

3) 1965년에 출판된 자신의 평론집 『갇힌 영혼』(*Soul on Ice*)에서 클리버는 흑인동성애자 루퍼스를 작가 볼드윈과 동일시하며 다음과 같이 신랄히 비판하고 있다.

> 제임스 볼드윈의 작품 속에는 흑인들,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한 가장 끔찍하고 절망적인 증오, 그리고 백인들에 대한 가장 굴욕적이고 광신적인 아첨과 동경이 담겨져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일들이 비단 볼드윈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 유명하다고 하는 많은 흑인작가들의 작품 속에서 반복되어 일어난다는 것이다. 대단한 모순이 아닐 수 없으며, 그것이 암시하는 바와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하니 정말로 참담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 수 없다.
>
> There is in James Baldwin's work the most grueling, agonizing, total hatred of the blacks, particularly of himself, and the most shameful, fanatical, fawning, sycophantic love of the whites that one can find in the writings of any black American writer of note in our time. This is an appalling contradiction and the implication of it are vast. (99)

4) 『제임스 볼드윈: 전기』(*James Baldwin: A Biography*, 1994)를 쓴 데이비드 리밍(David Leeming)에 따르면, "볼드윈은, 또한, 사람들이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신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막상 자신이 워싱턴 대행진 행사에서 어떠한 역할도 요청받지 못하자 크게 실망했다" (Baldwin knew, too, that people were wary of his reputation as a homosexual and he was disappointed that he had not been asked to participate in any meaningful way, 228).

된 이듬해 1963년 한 인터뷰에서 볼드윈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또 다른 나라』는 지금까지 제가 쓴 최고의 소설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그 작품 안에서 목표로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한 면에서는 저는 아직도 갈 길이 먼, 이제 막 작가의 길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또 다른 나라』는 제가 여태까지 썼던 어떤 작품들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들었던 작품이었지만, 저는 그 소설에서 결코 어떠한 것도 속이지 않았고, 어떠한 거짓도 쓰지 않았습니다. 어떤 비평가들은 제 등장인물들이 너무 피상적이고 깊이가 없으며, 제가 소설가라기보다는 마치 논쟁하는 사람처럼 글을 썼다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정도로 형편없는 작가도 아닙니다. **『또 다른 나라』는 작가로서의 저의 삶을 구원해 준 최고의 작품입니다**.

> I think *Another Country* is my best novel so far. Not because I achieved everything I wanted to in it—in that respect, I am only at the beginning of my life as a writer. But *Another Country* was harder and more challenging than anything I'd ever attempted, and I didn't cheat in it. I didn't tell any lies; at least I wasn't aware of telling any. I know some critics said the characters were cardboard and that I had become more of a polemicist than a novelist. I deny it. I'm much too good a pro to have that happen. *That book saved my life as a writer*—in my eyes. (Emphasis added, Standley 33-4)

물론 한 작가가 비평가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작품을 옹호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그 책이 작가로서의 나의 삶을 바꿔놓았다"라든지, "나는 어떠한 거짓도 쓰지 않았다"와 같은 볼드윈의 진술들은 사뭇 진지하며, 그 안에 피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들린다. 의미심장하게도, 볼드윈은 다른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언급을 했는데, 대담자가 많은 비평가들이 『산 위에 올라 말하리라』를 자신의 최고 작품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느냐고 묻자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사람들이 그 소설을 그렇게 좋아한다니 정말 기쁘군요. 하지만 그 책은 1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어떤 작가가 시간이 갈수록 자기 재능이 줄어든다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또 다른 나라』는 제가 반드시 써야만 했던 작품입니다. ... 저는 정말로 이 작품을 **써야만** 했습니다.
>
> I am glad they like that book so much. But it was written ten years ago. No writer likes to feel that he is getting worse. This [*Another Country*] is a book I had to write. ... I *had to* write this book. (Emphasis added, Thelwell 183).

그렇다면, 당시 이미 리처드 라이트(Richard Wright)와 랄프 엘리슨(Ralph Ellison)과 함께 20세기 흑인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의 반열에 오른 볼드윈이 자신의 명성에 엄청난 손상을 초래할 줄을 알면서도 루퍼스라는 흑인동성애자의 비극적 삶을 "재현해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많은 사람들의 혹독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나라』를 작가로서 자신의 삶을 "구원해준" 최고의 작품으로 꼽은 이유는 무엇일까?

Ⅲ. 자아 선언

위 질문의 대답과 관련하여 바로 이전 소설인 『조반니의 방』은 중요하다. 두 작품은 '동성애'라는 공통된 주제를 통해 볼드윈 문학의 핵심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을 통한 구원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는데, 실제로 출판 당시 많은 비평가들이 『또 다른 나라』를 미국 판 『조반니의 방』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조반니의 방』에서의 볼드윈과 『또 다른 나라』에서의 볼드윈은 분명히 구별되어질 필요가 있다. 『조반니의 방』은 볼드윈이 자신의 첫 번째 소설인 『산 위에 올라 말하리라』에서 감히

말할 수 없었던 동성애의 문제를 과감히 꺼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될 만하고[5], 그도 한 때 자신의 "독립선언"(declaration of independence, Standley 276)이라고 불렀을 만큼 볼드윈에게는 하나의 해방적 경험을 제공해 준 작품이다. 하지만 볼드윈의 자기 재현의 측면에서 볼 때, 『조반니의 방』은 하나의 완성되지 않은 단지 절반뿐인 자아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조반니의 방』이 볼드윈의 성적 정체성은 보여줬을지는 몰라도, 그의 또 다른 중요한 정체성인 인종적 자아는 전혀 드러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파리를 배경으로 데이비드(David)라는 한 미국청년의 자아 획득 과정을 이탈리안 바텐더

5) 『산 위에 올라 말하리라』는 볼드윈의 뉴욕 할렘 가 유년시절을 다루고 있는 준 자전소설이다. 볼드윈의 자기 재현적 인물인 14세 흑인소년 존(John)은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가족들, 특히 종교적으로 완고한 자신의 양아버지인 가브리엘(Gabriel)과 자주 부딪히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극심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된다. 소설은 결국 존이 흑인교회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신비로운 종교적 체험을 통해 자신의 성적 정체성에 대한 문제들을 억누르고, 소년목사가 되는 낙관적인 전망으로 끝이 난다. 소설의 초점을 14세 소년 존이 할렘 가에서 보낸 몇 개월 동안의 사건들에 제한시킴으로써, 볼드윈은 당시 흑인문학의 주류를 형성했던 백인과 흑인 간 인종적 대립과 증오의 프레임을 벗어나, 자신이 「모두의 저항소설」에서 역설한 것처럼, 흑인 사회 내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뛰어난 통찰력과 풍부한 묘사로 재현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자서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소년목사로서 존의 미래는 소설의 결말이 암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 14세 때 소년목사가 된 볼드윈은 얼마 못 가 교회의 위선과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가족과 교회를 떠난다. 그 이후 뉴저지와 같은 대도시에서 인종차별의 현실을 더욱 극심하게 경험한 볼드윈은 자신의 불확신한 미래와 인종문제에 대한 분노를 더 이상 다스리지 못하고 1948년 거의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유럽망명길에 오른다. 그 때 탑승했던 파리행 비행기 표가 왕복이 아닌 편도였다는 사실에서도 암시되듯이, 볼드윈은 결코 다시는 미국으로 돌아올 생각이 없었다. 『산 위에 올라 말하리라』는 이처럼 볼드윈 삶의 중요한 시기였던 14세 이후의 삶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이는 당시 자신의 멘토였던 라이트를 비롯한 주류 흑인저항소설작가들을 신랄히 비판하며 유명해진 초기 볼드윈이 자신의 저항소설비판이론을 증명할 수 있는, 즉 기존의 흑인소설과는 뭔가 다른 새로운 소설을 써야만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다분히 의도적으로 소설의 관점을 제한하면서 인종문제의 외부적 현실보다는 흑인사회 내부의 문제를 다루었던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특히 소설 속에서 존과 그의 교회 형제인 엘리사(Elisha)와의 우정관계를 묘사하면서 볼드윈은 상당히 절제되고 애매모호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동성애적 사랑을 암시하는 부분은 대부분 '종교적인 형제애'(religious brotherhood)의 가면 뒤에 숨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끝난다. 이러한 면에서, 볼드윈이 동성애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 다음 소설 『조반니의 방』을 자신의 "독립선언"이라고 부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며, 비록 그것이 인종적 요소가 빠진 절반뿐인 자아선언이라 할지라도, 이전 소설에서 감히 말할 수 없었던 것을 과감히 드러냈다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조반니(Giovanni)와의 사랑을 통해 묘사하고 있는『조반니의 방』은 정말로 단 한명의 흑인인물도 다루지 않고 있으며, 작품 어디에도 인종(race)의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1984년 한 인터뷰에서 볼드윈은 이러한 인종적 요소의 부재를 당시 자신의 부족한 문학적 능력과 연관시켜 설명했다.

> 그 당시 제 인생에서 그렇게 힘든 시기에, 저는 인종문제와 같이 복잡하고 힘든 주제를 다룰 수 없었습니다. 성과 관련된 도덕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만으로도 정말 힘들었기 때문이죠. 한 책에서 그 어려운 주제 두 개를 동시에 다루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론 방법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겠지만. 또한 만약 지금 다시 쓰게 된다면 어떻게 더 잘 해볼 수는 있겠지만, 제가 파리에 있었던 그 때에『조반니의 방』에 흑인인물을 등장시키는 일은 정말 저의 능력 밖이었습니다.

> I certainly could not possibly have—not at that point in my life—handled the other great weight, the "Negro problem." The sexual-moral light was a hard thing to deal with. I could not handle both propositions in the same book. There was no room for it. I might do it differently today, but then, to have a black presence in the book at that moment, and in Paris, would have been quite beyond my powers. (Standley 239)

하지만 볼드윈이 성과 인종의 문제를 동시에 다루지 못한 것은 단지 이러한 문학적 기교의 차원만은 아닌 것 같다.『조반니의 방』보다 한 해 앞선 1955년 볼드윈의 첫 번째 에세이집인『토박이의 메모』(*Notes of a Native Son*)가 미국에서 출판되었는데, 그 안에는 초창기 거의 무명에 가까웠던 볼드윈을 일약 메이저 작가로 만들어준「모두의 저항소설」("Everybody's Protest Novel," 1949)을 포함하여 당시 미국 인종문제의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한 글들이 상당수 실려 있다.『토박이의 메모』출판 이후 많은 흑인들은 토박이이지만 어떠한 유산도 물려받지 못하고 인종적 타자로 살아야만 하는 자신들의

고통과 한(恨)을 뛰어난 통찰력으로 묘사해 준 볼드윈이 계속해서 정치적, 문화적 대변자가 되어주기를 바랬는데, 이러한 흑인들의 기대는 자신의 성적 정체성과 문학적 소재에 진실하기를 원했던 볼드윈이 처한 딜레마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사회적 기대와 개인적 가치사이 극심한 내적갈등은 『또 다른 나라』를 쓰는 동안 볼드윈의 펜을 계속해서 멈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소설의 진도가 너무 느려지자 볼드윈은 자신의 친구인 빌 콜(Bill Cole)에게 "이 소설은 나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완전히 폐인으로 만들고 있어. 아마 나는 이 소설을 끝낼 수 없을 것 같아"(Campbell 128)라고 말한다. 여기서 볼드윈을 그렇게 힘들게 만든 건 이미 『조반니의 방』에서 다루었던 '동성애'(homosexuality)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그동안 자신의 작품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던 '흑인동성애'(Black homosexuality)의 문제, 즉 루퍼스를 통해 보게 된 자기 정체성의 현실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드윈의 진정한 문학적 "자아선언"은 『조반니의 방』이 아닌 『또 다른 나라』에서 성취되는 것이며, "나는 이 소설을 써야만 했어," "그 소설은 작가로서의 나의 삶을 구원해주었어"와 같은 볼드윈의 진술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Ⅳ. 인종과 성을 초월한 사랑의 문학적 비전

『또 다른 나라』에서 볼드윈은 루퍼스라는 인물을 통해 자신이 처한 흑인동성애의 현실을 직면하는 한편, 미국사회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성과 인종적 편견, 그리고 그 억압의 역사를 들춰내고 있다. 얼핏 보면, 『조반니의 방』의 백인남자 주인공 데이비드가 처한 동성애의 문제와 루퍼스가 직면한 동성애의 문제가 비슷해 보이지만, 루퍼스의 경우는 성적인 것과 인종적인 것이 혼합된, 즉 백인 중심의 가부장적이고 인종차별적인 미국사회에서 그가 흑인 동성애자 개인으로서 겪어오고 있는 고통과 현실을 총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데이비드의 경우와는 그 성격 자체가 다르다. 따라서 『조반니의 방』의 동성애적 관점으로 『또 다른 나라』의 흑인동성애를 분석하는 데에

는 그 구조적인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으며, 루퍼스의 삶 깊숙이 자리한 미국 인종문제의 역사와 볼드윈이 의도한 작품 전체의 의미에 좀 더 근접하기 위해서는 인종과 성의 문제를 반드시 함께 다루어야만 한다. 볼드윈은 "인종과 성"을 모든 미국인들이 반드시 직면해야만 하는 두 개의 가장 중요한 현실로서 지적했는데, 『또 다른 나라』는 이러한 그의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the novel is based on my assumption that the two 'most profound realities' that the American citizen has to deal with are 'colour and sex'," qtd. in Campbell 134).

20세기 초 인종문제가 극에 달했던 짐 크로우(Jim Crow) 시대에 많은 흑인 남성들이 조작된 백인여성 강간죄로 린치(lynch)와 거세(castration)를 당했는데, 이러한 흑인남성성의 굴욕적인 역사와 백인들의 계속되는 폭력과 위협은 어떤 흑인 남자들로 하여금 '성'(sex)을 인종억압에 대한 복수, 또는 자신들의 남성성을 내세우기 위한 잘못된 수단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루퍼스가 바로 그러한 흑인들 중의 한명이다. 루퍼스는 백인여성 리오나(Leona)의 억양을 듣고 그녀가 남부출신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본능적으로 자신이 예전에 남부에서 당했던 굴욕을 떠올린다(Rufus immediately recalls his days in boot camp in the South and feels again the shoe of white officer against his mouth, 12). 자신에게 호의를 보이며 사랑을 제안한 리오나를 하나의 독립적인 개인으로 보지 못하고 단지 자신이 과거에 백인장교로부터 받았던 굴욕에 대한 복수의 대상으로 여김으로써, 루퍼스는 리오나와의 폭력적인 섹스를 하나의 인종적인 복수로 간주한다.

> 루퍼스는 리오나가 그녀가 사는 날 동안 오래 자신을 기억하기를 원했다. 그러한 생각에 흥분되어 있는 지금, 그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심지어 **백인 린치 군중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헉헉 거리며, 루퍼스는 우윳빛 빛깔의 백인 리오나를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낮게 탄성을 지르기도 하면서, 자신의 **무기**를 그녀의 허벅지사이로 끼어 넣었다. 리오나는 고통스러운 듯 신음을 내고. ... 탄성과 욕을 번갈아 내뱉으면서, 루퍼스는 그의 온힘을 다해 리오나를 계속 범하다 절정의 순간에, 마치 그의 몸속에서 어떤 독

> 소가 빠져나가는 듯이, 수백 명의 혼혈 아기들을 잉태시킬 수 있을 만큼 많은 정액을 쏟아냈다.
>
> He wanted her to remember him the longest day she lived. And shortly, nothing could have stopped him, not *the lynch mob* arriving on wings. Under his breath he cursed the milk-white bitch and groaned and rode his *weapon* between her thighs. She began to cry. ... A moan and a curse tore through him while he beat her with all the strength he had and felt the venom shoot out of him, enough for a hundred black-white babies. (Emphasis added, 22)

위의 인용문에서 강조된 "린치군중"(the lynch mob)이라든지, 또는 "무기"(weapon)같은 표현들은 루퍼스가 리오나와의 섹스를 개인 간 사랑의 표출로서가 아니라, 흑인남성에 대한 백인들의 억압과 폭력의 역사에 대한 하나의 집단적인 인종적 복수의 행위로써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루퍼스는 자신을 향한 리오나의 사랑이 진실이란 걸 알지만, 그가 백인사회에서 겪었던 인종적 상처는 너무나 깊어서 리오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도, 또는 자신의 사랑을 줄 수도 없다. 결국 리오나는 육체적, 심리적 고통으로 인해 정신병원에 수감되고, 그로 인한 죄책감에 시달리던 루퍼스는 결코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자신의 비참한 현실에 좌절한다.

거의 똑같은 상황이 루퍼스와 에릭(Eric)간의 동성애관계에서도 나타나는데, 리오나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루퍼스는 에릭이 단지 미국남부 알라바마(Alabama)출신이란 이유로 그를 멸시하고, 이제 그 둘 사이의 섹스는 백인남성과 흑인남성 사이의 더 치열하고 폭력적인 전쟁터가 된다.

> "에릭, 네가 여자처럼 행동해." ... "나는 너 같은 백인 놈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애송이가 아니야. 나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어." 사랑과 권위, 그리고 호기심 등 여러 감정들이 뒤섞인 상태로 루퍼스는 자신도 주체할 수 없는 어떠한 폭력적인 힘에 이끌려 에릭의

> 어깨를 잡고 격렬하게 섹스를 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폭력적인 행위에 루퍼스 자신도 놀랐지만, 그는 어떻게 멈춰야할지를 알지 못했다. ... 에릭을 여성, 아니 여성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조롱하고, 루퍼스는 에릭의 백인남성성을 마구 농락했고, 마치 그를 하나의 흉측한 성적 기형으로 만들려는 듯 더 격렬하고 폭력적으로 섹스를 이어갔다.
>
> "You act like a girl—or something." ... "I'm not the boy for you. I don't go that way." But with his hands on Eric's shoulders, affection, power, and curiosity all knotted together in him—with a hidden, unforeseen violence which frightened him a little; the hands that were meant to hold Eric at arm's length seemed to draw Eric to him; the current that had begun flowing he did not know how to stop ... he had despised Eric's manhood by treating him as a woman, by telling him how inferior he was to a woman, by treating him as nothing more than a hideous sexual deformity. (45-6)

하지만 결국 "흉측한 성적 기형"으로 전락하는 것은 에릭이 아닌 루퍼스 자신이라는 것을 소설은 분명히 보여준다. '호모포비아'(homophobia)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의도적으로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흑인사회 전체로부터 자신을 멀리 했던 루퍼스, 이제 그가 사랑하거나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은 아무도 없으며, 그는 이제 어느 누구도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무관심하고 적대적인 세상에 완전히 홀로 남겨진, 비평가 찰스 툼스(Charles Toombs)의 표현대로, 하나의 "변칙"(anomaly, 108), 즉 비정상 인간이 된다. 루퍼스가 조지 워싱턴 다리에서 투신해 목숨을 끊기 전 비발도(Vivaldo)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할 때, 그를 "이생에서의 자신의 유일한 친구"(the only friend he had left in the city, or maybe in the world," 3)라고 부르는 것은 당시 루퍼스가 처한 비참한 개인적 현실을 단적으로 잘 보여준다.

루퍼스의 비참한 최후를 통해 볼드윈은 인종억압의 역사와 성적 억압의 역

사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또한 만약 그러한 인종과 성적인 억압에 대한 검토되지 않은 과거가 제대로 치유되고 해결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한 개인의 삶, 더 나아가 사회전체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루퍼스가 자살을 결심하고 조지 워싱턴 다리로 가기 위해 탄 기차는 이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상징이다.

> 열차가 상처 난 레일 위를 달려 역내로 들어왔다. 사람들이 열차에 올라 탓을 때 이미 객실은 승객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열차가 시내 쪽으로 얼마 가지 못해 곧 사람들로 붐벼 질식될 것만 같았다. 그 좁은 공간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며 주위 사람들에겐 관심조차 없다. 열차 안에 있는 많은 백인들과 흑인들, 암시적으로 미국의 오랜 역사 속에서 함께 생활해 온 그들 모두는 이제 서로 서로로부터 멀어지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며, 루퍼스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백인과 흑인들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 The train came in, filling the great scar of the tracks. They all got on, sitting in the lighted car which was far from empty, which would be choked with people before they got very far uptown, and stood or sat in the isolation cell into which they transformed every inch of space they held. ... Many white people and many black people, chained together in time and in space, and by history, and all of them in a hurry. In a hurry to get away from each other, he thought, but we ain't never going to make it. (85-6)

기차장면을 통해 볼드윈은 백인과 흑인을 포함한 모든 미국인들에게 증오와 폭력으로 얼룩진 "과거의 모든 상처"(the great scar of the tracks)를 하루빨리 치유하고 화합과 일치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면, 미국은 결국 "세계에서 유례없이 실패한 나라가 되고 말 것"(one of the most

distinguished and monumental failures in the history of nations, 114)[6]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결국 비발도가 마지막 순간에 루퍼스를 구할 수 없었던 이유도 이러한 문제들, 즉 과거문제에 대한 회피와 미국인들 사이에 만연한 사랑과 의무의 결핍과 관련이 있다. 그 날 밤, 루퍼스가 절망 가운데 용기를 내서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비발도에게 하나의 "사랑"을 제안했을 때, 비발도는 자신 또한 동성애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며 루퍼스의 제안을 거부한다 (51). 당시 루퍼스의 절망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비발도는 루퍼스의 제안을 그동안 자신과 루퍼스 사이에 진행된 하나의 남성성의 "게임"(134)으로 받아들였는지도 모르겠다. 루퍼스는 종종 비발도에게 자신의 남성성을 자랑했는데, 그 때마다 비발도는 둘 사이의 남성적 "동등함"을 주장하며 그 의미 없는 게임을 계속해 왔다. 뿐만 아니라, 비발도는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며 자신의 솔직하지 못함과 무책임함을 합리화시키는데, 루퍼스가 마지막 날 자신을 찾아왔을 때도 비발도는 루퍼스가 자신에게 원한 것이 게임도, 쾌락을 위한 섹스도 아닌 하나의 진실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비발도가 에릭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그 때 만약 비발도가 자신의 동성애를 인정하고, 좀 더 진실하게 루퍼스에게 다가가 그의 고통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위로해줄 수만 있었다면 루퍼스는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비발도는 시종일관 자신과 루퍼스와의 관계를 게임으로 받아들였으며, 결국 그 게임 속에서 루퍼스는 죽고 만다.

『또 다른 나라』에서 볼드윈은 루퍼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과거의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회피하는 비발도와 같은 미국인들과 전체 미국사회에 지우고 있는 한편, 또한 루퍼스 자신에게도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1970년 한 인터뷰에서 볼드윈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루퍼스 자신도 그의 비극적 죽음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듯 루퍼스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지움으로써 저는 전통적인

6) Baldwin, "Nobody Knows My Name: A Letter from the South,"*Nobody Knows My Name* (New York: Vintage, 1989)

> 흑인 남성의 문학적 재현, 즉 백인들의 폭력과 횡포에 시달리다 결국 자살과 같은 비극으로 생을 마감하는 지극히 감정적이고 동정을 유발하는 방식으로부터 탈피하고자 했습니다.
>
> Rufus was partly responsible for his doom, and in presenting him as partly responsible, I was attempting to break out of the whole sentimental image of the afflicted nigger driven that way (to suicide) by white people. (Standley 104)

위의 인용문은 인종문제에 대한 볼드윈의 도덕적 접근방식을 반영하고 있는데, 특히 볼드윈은 자신의 소설인물들을 평가할 때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주변환경도 중시하지만, 캐릭터 개개인의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그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강조한다. 마찬가지로, 볼드윈의 작품들은 무책임하고 비인간적인 백인사회가 어떻게 흑인들의 삶을 파멸로 이끄는가도 보여주지만, 흑인들의 절망과 분노가 어떻게 그들 자신의 삶을 파멸로 이끌고 있는가의 문제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루퍼스는 볼드윈의 친한 친구였던 유진 워쓰(Eugene Worth)를 모델로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소설 속 루퍼스처럼 유진도 인종차별과 억압에 대한 분노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1946년 조지 워싱턴 다리에서 자살로 생을 마쳤다. 어떠한 면에서, 루퍼스는 1948년 유진의 죽음을 목격하고 거의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결심과 함께 프랑스행 비행기에 올랐던 볼드윈의 '옛 자아'(old self)이기도 하다. 볼드윈이 9년간의 유럽망명생활을 통해서, 또한 자신의 문학에서 끊임없이 사랑을 통한 구원의 가능성을 탐색한 이유도 아마 다시는 유진과 자신같이 분노로 자신의 삶을 파멸시키는 비극적 흑인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을 것이다.

여기서 개인의 책임에 대한 볼드윈의 강조는『또 다른 나라』를 라이트의『토박이』(*Native Son*, 1940)를 비롯한 여러 흑인저항소설들과 결정적으로 구별되게 해주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몇몇 비평가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또 다른 나라』의 의미가 루퍼스의 고통스러운 삶과 비극적인 죽음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루퍼스는 작중 다른 인물들의 변화와 갱생을

유도하는 하나의 촉매(catalyst)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볼드윈이 강조한 것처럼, "루퍼스는 미국의 의식 깊은 곳에 떠돌아다니는 검은 유령과도 같습니다. 그와 그의 존재가 의미하는 모든 것들이 제대로 직면되고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미국 사회에 결코 평화란 없을 것입니다"(Rufus is the black corpse floating in the national psyche; he and what he represents must be squarely faced if we are to find peace in ourselves and our society, Leeming 201). 이러한 면에서, 『또 다른 나라』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루퍼스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전반부 1/3 이후에 시작되며, 그 내용 또한 루퍼스의 죽음이 어떻게 다른 등장인물들의 의식을 성장시키며, 궁극적으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고 하겠다.

루퍼스의 죽음 이후 가장 비중을 받는 인물관계는 루퍼스의 여동생인 아이다(Ida Scott)와 비발도로서, 이 두 인물이 사랑을 통해 화해와 일치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작품의 후반부 중심에 있다. 비발도와 아이다는 각자 서로 다른 목적으로 관계를 시작하는데, 아이다가 자신의 오빠인 루퍼스를 구하지 못한 비발도에게 복수하려는 의도였다면, 비발도는 루퍼스의 죽음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과 그 동생에 대한 동정심으로 아이다를 만난다. 비발도의 특유의 무관심한 태도와 백인남성에 대한 아이다의 불신 등 둘 사이의 관계는 결코 순탄치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비발도와 아이디가 자기 자신과 상대방의 처지를 인정하고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둘 사이에는 하나의 신뢰가 싹트게 되고 그들의 관계도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상당히 의미 있는 단계로 발전한다. 소설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배우가 되기를 꿈꿨던 아이디가 자신의 성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백인프로듀서와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비발도에게 용기 있게 고백하고, 처음에는 분노했던 비발도도 점차 젊은 흑인여배우로서 아이디가 백인남성위주의 상업주의 사회에서 직면해야만 하는 현실을 이해하게 되는데, 그러한 이해와 수용의 과정을 통해 비발도 자신도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비로소 인정하며 받아들인다. 특히 『또 다른 나라』의 마지막 장면에서 볼드윈이 비발도와 아이다가 백인의 죄책감(white guilt)과 흑인의 증오(black hatred)라는 미국사회의 인종관계 역사의 벽을 넘어 서

로에게 다가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하나의 초월적 사랑으로 묘사하는 부분은 인상적이다.

>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비발도가 먼저 아이다에게 다가가 그녀를 껴안았다. 그 순간, 그의 몸은 떨렸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한없이 쏟아져 나왔다. 비발도가 그녀의 얼굴에 키스를 하는 동안 아이다는 그의 가슴 속에 얼굴을 묻고 나지막한 한숨을 내쉰다. 서로를 껴안고 있는 비발도와 아이다의 모습은 에로틱한 연인들의 사랑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오히려 그들은 삶에 지친 두 명의 아이들처럼 보인다. 아이다가 자신의 길고 가냘픈 손으로 비발도의 등을 쓰다듬으며 위로해줄 때, 비발도는 그녀의 품 안에서 다시금 주체할 수 눈물을 흘리며, 마치 아이처럼 큰 소리로 엉엉 울기 시작한다. 마치 아이다가 비발도 안에 있던 순수함을 달래서 꺼내준 것처럼.
>
> They stared at each other. Suddenly, he reached out and pulled her to him, trembling, with tears starting up behind his eyes, burning and blinding, and covered her face with kisses, which seemed to freeze as they fell. She clung to him; with a sigh she buried her face in his chest. There was nothing erotic in it; they were like two weary children. And it was she who was comforting him. her long fingers stroked his back, and he began, slowly, with a horrible, strangling sound, to weep, for she was stroking his innocence out of him. (431)

V. 나가는 말

비발도와 아이다의 사랑의 성취로 끝나는 『또 다른 나라』는 그동안 볼드윈의 소설은 여성과 남성간의 전통적인 사랑방식을 무시하고 오로지 남성들 간

의 변칙적 동성애만을 부추긴다는 일부 전통적인 호모포빅(Homophobic) 비평가들의 주장을 모순되게 한다. 흑인과 백인, 남과 여, 이성애와 동성애 등 사회·문화적으로 정의된 세상의 어떤 "분류"(categories)에도 당당히 맞섰던 볼드윈이 추구한 것은 자유로운 개인들, 또한 그들이 연출해내는 다양한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로 엮어주는 숭고한 "사랑"과 그 구원의 힘이다. 특히 『또 다른 나라』의 마지막 장면이 불러일으키는 이미지, 흑인여성의 따뜻한 품안에서 아이처럼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인간됨'(humanity)을 회복하는 백인남성의 모습은 당시 분열되고 적대적인 미국인 종문제에 대한 볼드윈의 강렬한 문학적 비전이다. 아이다와 비발도의 관계에서도 암시된 것처럼, 볼드윈은 종종 흑인과 백인 간의 미국 인종관계의 역사를 하나의 "사랑 관계"(the history of a very long love affair, Bigsby 88)로 비유하곤 했는데, 이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흑인과 백인은 잦은 다툼과 억압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운명의 끈으로 연결된 '동지'라는 볼드윈의 믿음을 반영한다.

Works Cited

Baldwin, James. *Another Country*. New York: Vintage, 1993.

_____. "Autobiographical Notes." *Notes of a Native Son*. Boston: Beacon, 1984. 3-9.

_____. "In Search of a Majority." *Nobody Knows My Name*. New York: Vintage, 1989. 127-37.

_____. "Nobody Knows My Name: A Letter from the South." *Nobody Knows My Name*. New York: Vintage, 1989. 98-116.

Bigsby, C.W.E., ed. *The Black American Writer: Volume I: Fiction*. Deland, Fla.: Everett/Edwards, 1969.

Campbell, James. *Talking at the Gates: A Life of James Baldwin*.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91.

Cleaver, Eldridge. *Soul on Ice*. New York: Delta, 1968.

Leeming, David. *James Baldwin: A Biography*. New York: Alfred A. Knopf, 1994.

Standley, Fred L., and Louis H. Pratt, eds. *Conversations with James Baldwin*. Jackson, Miss.: UP of Mississippi, 1989.

Thelwell, Mike. "*Another Country*: Baldwin's New York Novel." *The Black American Writer: Volume I: Fiction*. Ed. C.W.E. Bigsby. Deland, Fla.: Everett/ Edwards, 1969. 181-198.

Toombs, Charles P. "Black-Gay-Man Chaos in *Another Country*." *Re-viewing James Baldwin: Things Not Seen*. Ed. D. Quentin Miller. Philadelphia: Temple UP, 2000. 105-27.

Abstract

James Baldwin's Declaration of Self and the Vision of American Race Relations in *Another Country*

Aum, Gidong

James Baldwin's third novel, *Another Country* (1962), can be marked as a turning point in his literary career. In the novel Baldwin deals with the theme of black homosexuality for the first time, creating the character of Rufus Scott, a black gay man, whose kind never appeared in any of his previous works, *Go Tell It on the Mountain* (1953) and *Giovanni's Room* (1956). In this essay I use the term, "black homosexuality," in order to distinguish Baldwin's treatment of homosexuality in *Another Country* from that of *Giovanni's Room*, a novel that deals with the intraracial rather than the interracial love between the two white men, David, a young American in Paris, and his Italian lover named Giovanni. Baldwin once called *Giovanni's Room* his personal "declaration of independence," perhaps in the sense that he could reveal what he had not been able to do in his highly acclaimed first novel, *Go Tell It on the Mountain*, in which he traces his childhood, describing beautifully a variety of black lives in Harlem. As far as Baldwin's self-representation is concerned, however, *Giovanni's Room* may be only half a proper declaration of independence, for it does not represent another important part of his being, that is, his racial identity. This essay reads *Another Country* as Baldwin's true declaration of himself. In the novel Baldwin employs Rufus as a figure for his self-representation, or a vehicle through which he attempts to confront the reality of his own black homosexuality, freeing himself from the dilemma which he has faced

as an individual artist seeking to be true to his materials and as a spokesman of black people. Though homosexual contents of *Another Country* and the novel's scandalous reception in America seriously damaged Baldwin's reputation as a writer representing twentieth-century African-American literature, along with Richard Wright and Ralph Ellison, the novel "saved [his] life as a writer," and as Baldwin insisted in several interviews, it is the book he "had to write." Another important concern this essay has of *Another Country* is how Baldwin develops his philosophy of "love" into a vision of American race relations. Relationship is a recurring theme of Baldwin's fiction, but he did not apparently deal with the relationships between white and black people in the earlier novels; it is only in *Another Country* that Baldwin attempts at the theme, fictionalizing what he wrote in many of his non-fiction essays, including "The Male Prison" (1954), "Nobody Knows My Name" (1959), and "In Search of a Majority" (1960). Emphasizing the ending of *Another Country*, where Ida Scott (Rufus's sister) and Vivaldo (Rufus's white friend who felt guilty about his death) achieve a kind of coherence in their relationship all beyond the history of white guilt and black hatred, this essay demonstrates that the love Baldwin pursues in his novel is not exclusively homosexual; but it is a transcendent love that embraces all human beings beyond gender, race, class, and any other socially constructed categories.

Key words: Baldwin, Black homosexuality, self-representation, American race relations, transcendent love
볼드윈, 흑인동성애, 자기 재현, 미국 인종관계, 초월적 사랑

논문접수일: 2013. 04. 25.
심사완료일: 2013. 06. 13.
게재확정일: 2013. 06. 17.

이름: 엄기동
소속: 덕성여자대학교
주소: 132-714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 144길 33, 차미리사관 120호
이메일: lizan0918@hotmail.com